

## 2009수시, 입학사정관제도 첫 도입

### 자기추천 전형 통해 획일 평가 벗어나 창의적 인재 선발

우리대학이 2009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 입학사정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입학처(처장=고유환·북한학)에 따르면 수시 2-1 모집에서 시험성적 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자기추천 전형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도는 기존의 수능점수나 내신, 논술 등 수치화 된 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환경, 특기, 성격 등을 판단해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다.

입학사정관제도 도입과 함께 신설된 자기추천 전형의 1단계는 100% 서류전형으로 정원(27명)의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

접 20%와 학생부 50%, 1단계 성적 30%로 평가해 최종 27명을 선발한다.

입학처 입학기획팀의 김진환 팀장은 "수치화 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획일화 된 신입생 선발제도에 의해 재능이 묻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의 잠재성을 발견해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 나가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도의 진정한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추진한 '2008년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에 우리대학이 응모해 선정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입학사정관 지원제도는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채용, 전형과정에 활

용함으로써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을 지양하고 전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억원 규모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올해 158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입학사정관은 직무상 대학 내 다른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으로서 전형기간과 무관하게 연중 입학업무 수행하는 전문가다.

올해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대학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전제로 3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추진성과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까지 최대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우리대학을 비롯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40개 대학이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수업 끝나고 영화제! 제2회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지난 3일을 시작으로 9일간 시청 앞 광장과 충무로, 명동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콘서트나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 연극학부, 연구과제 수주 3년간 7억5천만원 지원 받아

연극학부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CT)개발사업에 제출한 '통합형 공연 디자인 시스템 및 직관적 공연 콘트롤 알고리즘 설계 및 개발' 연구가 채택돼 앞으로 총 3년간 해마다 2억 5천 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연구 내용은 공연과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공연 진행을 위한 메뉴얼을 온라인상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내용이다.

신영섭(연극학) 교수는 "해마다 연구성과에 따라 사업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에는 문화관광부와 본 연구에 대한 협약식이 체결 될 예정이다.

## 정재형 교수, 정직 징계에 교육부 소청심사 맞대응

전 교수회장 정재형(영상영화학) 교수에게 지난 7월 10일부터 2개월간 정직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및 학교 보직자의 명예와 위신 손상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신정아 사건 관련해 교수회장으로서 발언을 가지고 이런 결정이 떨어진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결정 동인에는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보수가 3분의 1로 제한된다.

## 우리대학, 예일대 협상 제의 일축

### 지난달 28일 열린 미 법원중재 화의조정 결렬

우리대학이 예일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열린 미국 법원의 1차 화의조정이 결렬됐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 도나 마티네즈 판사 주재로 열린 1차 화의조정(Settlement)이 우리대학과 예일대의 의견차이로 결렬됐다는 것이다.

예일대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화의조정에서 예일대 측은 "학력검증을 잘못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동국대학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폭넓은 협력프로그램들은 지원할 수 있으나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은 "금전적 배상이 없는 사과와 협력 프로그램들은 그동안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며 예일대의 협상 제의를 일축했다.

화의조정 결렬과 관련해 한진수 경영부총장(회계학)은 "항후 진행될 증거 수집절차(Discover)에서 예일대가 우리 대학의 학력 검증 요청을 잘못 확인해 준 것을 알고도 숨겼다는 정황증거가 나온다면 징벌적 배상의 책입까지 물을 수 있다"고 밝히고 예일대의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예일대는 이번 1차 화의조정 회의에 부총장과 대외협력실 직원, 변호인, 보험회사직원까지 참여하는 등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본관에 거액 기부자 조형물 설치

### 특별 예우 차원 ... 10월 초 완공 예정

거액 기부자들에 대한 특별 예우를 마련하기 위한 기부자 예우 조형물 설치 공사가 지난 3일부터 본관에서 시작됐다.

대외협력단(단장=이선인)은 학교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The History of Dongguk'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업은 거액 기부자의 조형물 설치를 통해 기부자들을 특별 예우하고, 동국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더불어 우리대학의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 및 발전 계획을 함께 선보이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이번 공사에는 본관 입구쪽 벽면이 활용된다. 또한 기존의 바닥을 헐어내고 유리 바닥으로 새롭게 개조하는 공사까지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본관 입구 정면에 놓여있던 홍보용 모니터를 떼어내고, 본관 입구 쪽 방향과 그 반대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를 각각 2대씩 총 4대의 모니터를 설치한다. 모니터에는 학교의 현재와 미래 모습의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본관 입구의 벽면은 불교 종립대학인 특성을 살려 오방색(청, 황, 적, 백, 흑)으로 꾸며지게 된다. 꾸며진 벽면 위는 유리벽으로 마감 후, 학교 연혁과 함께 발전계획을 새겨

놓고 거액 기부자 예우 조형물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3억 이상의 고액기부자인 10명에 한해서는 인적사항과 출신학교와 고향 등이 기재된 기부자 명판을 제공, 1천 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기부자인 약 700명에 한해서는 인적 사항을 기재해 벽면에 게시할 예정이다.

본 공사는 10월 초에 완공, 중순경에는 고액기부자 및 일반 동문을 초청해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 10일 독거노인 한가위 잔치 108리더스 주축 만해광장서

우리대학 참사랑봉사단(단장=조훈영·물리학)이 중구 재가 복지 연합회와 함께 오는 10일 만해광장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한가위 한가움' 축제를 연다.

제2기 108리더스가 주축이 될 이번 행사는 추석맞이 송편 빚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한편 우리대학 댄스 동아리 SSSIP을 비롯한 문화 공연 또한 펼쳐질 예정이다.

참사랑봉사단 박현숙 직원은 "추석을 외롭게 보낼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가 학생들이 지역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오늘(8일)부터 수시 2-1 원서접수 시작

### World Wide·자기추천·기회 균등 전형 등 눈길

우리대학은 오늘(8일)부터 12일까지 2009학년도 수시 2-1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입학기획팀(팀장=김진환·철학)에 따르면 수시 2-1 전형 중 이번엔 신설된 전형은 World Wide 인재전형, 자기추천전형, 기회균형의 기부자인 약 700명에 한해서는 인적 사항을 기재해 벽면에 게시할 예정이다.

적이다.

신설된 World Wide 인재전형은 졸업과 동시에 텍사스대, 뉴욕 주립대와 같은 미국 자매대학에서 복수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자기추천전형의 경우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도로 자기추천서와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 금주의 동국인

### 발칙한 무중력 세계로 작가 윤고은의 세상바라기

영동하지만 유쾌하고, 냉소적이지만 발랄한 그녀의 글들이 동국 문인의 명맥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외로움은 최고의 비아그라다. 내 머리 위에는 긴 촉수가 솟아있다. 송신탑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안테나다'란 문장으로 시작하는 장편소설 '무중력증후군'으로 제13회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한 윤고은(본명 고은주, 문창 04졸) 작가를 만났다.

재학시절에는 다양한 동아리 경험과 교육방송국 활동 등 많은 경험들을 쌓았다는 그녀는 졸업반이던 2003년 제2회 대산대학

문학상 소설부문에 당선돼 일찌감치 짧은 작가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본명은 '고은주'. 동명의 선배 소설가를 존중해 어머니 성을 앞에 붙인 예명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그녀가 돋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다.

'무중력증후군'은 '늘어나는 말의 숫자=이상해진 사람들의 증가'란 다소 영뚱한 등식을 통해 균중의 소외감을 재치있게 풍자한 소설이다. 소설가 황석영씨는 "소외의 무게는 가볍게, 상처의 잔혹함은 경쾌하게 그려나갈 줄 아는 재미있는



▲ 고은주(문창 04졸)

글이다"라고 극찬했다. 우선 성장소설로 출발하고 싶다는 그녀가 앞으로 사회에 대한 냉소들을 얼마나 유쾌하게 풀어낼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신종서 기자 jongseo@dongguk.edu

지/면/안/내

2 강의평가 중간점검

3 알레스카 오지탐사 수기

4 예코캠퍼스 기획연재 - 1

5 철학콘서트 저자 황광우 인터뷰

8 동굴탐험체험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64호는 9월 29일 자로 발행되오니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2009학년도 수시2학기 신입생 모집



# Your Future, Start Here!

가지 않겠다. 모두가 말하는 내일이라면-  
내가 가진 특별함을 이끌어내 더 즐겁게, 더 신나게  
나만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

나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곳 - 동국대학교

인터넷 원서 접수 | 서울캠퍼스(수시2-1) 2008.9.8(월)~9.12(금) | (수시2-2) 2008. 11.18(화)~11.20(목)  
경주캠퍼스(수시2) 2008.9.8(월)~9.16(화)  
입학상담 | http://www.dongguk.edu  
서울캠퍼스 입학관리팀 02)2260-8881~4 / http://ipsi.dongguk.edu | 경주캠퍼스 입학관리팀 054)770-2031~4 / http://ipsi.dongguk.ac.kr

세상을 비추는 힘 | 동국대학교  
세상을 깨우는 이름 | UNIVERSITY

# 강의평가 공개 6개월 ... 이제는 정착단계

## 교수·학생 의견 적극 반영되면서 안정돼 ... 평가불참 학생 불이익 '불만' 제기도

국내대학 최초로 강의평가 공개가 시작되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강의평가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학기 강의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의 강의계획서 웹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수강신청 전에 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평가 결과는 EX, G, P의 기준의 3가지 등급 방식에서 Ex(Excellent: 1~20%), G(Good: 21~50%), C(Common: 51~80%), P(Poor: 81~100%)인 총 4가지 등급으로 나눠 교수 별로 공개됐다.

학기 중 두 번에 걸쳐 실시했던 강의평가를 지난학기에는 예비평

가 격인 1차 평가가 포함돼 총 3차례의 강의 평가가 진행됐다.

교무팀 관계자는 "1차 강의평가 결과가 담당 교수에게 전해짐으로써 남은 강의의 방향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개강 초 학생들과 교수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보다 나은 강의의 진행을 위해 첫 강의 평가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수회장 유덕기(식품산업시스템공학) 교수는 "강의평가 공개 직후 일반인에게까지 교수들의 실명 공개가 일어났던 일은 우려스러우나,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평

가 공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의평가 수행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공시 확인이 제한되고, 장학금에 대한 페널티를 받은 것에 대해 그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 왔다.

오병희(회계2) 군은 "강의평가 실시를 개인별 성적공시 여부 및 장학금 문제와 연관 짓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강의평가는 성과평가시스템을 시행하는 우리대학의 사상상 교수님의 성과급 지급과 명목에 돌아가는 부분이 크다"며 "학생들의 참여율과 의사발언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드백 효과 또한 높아지는 대의적인 면을 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학기 성적우수장학금에 대한 페널티는 해당 학과 교수들의 재량 사항이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다른 장학금 신청에도 적용시키거나 장학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중이다"며 더욱 강화된 규칙 적용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학기 강의평가 학생 참여율은 전체 수강생 87,631명중 81,962명이 참여해 93.5%를 보였다. 또한 고학년으로 갈수록 평가 확률이 높아지는데 반해 1학년의

참여는 2~4학년에 비해 10~20% 가량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단과대학별 교원의 평균 점수는 예술대학이 164.05로 최고, 생명과학대학이 155.64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체 1044명의 교원 중 전임교원에 대한 만족도가 비전임 교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과 교직 강의에 대한 점수는 전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수가 많은 강의일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우 내부 규칙에 따라 점수 보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전체교수회의에서는 강의평가 상위권 교수에 대한 Best Teaching 수상이 있었다. 인문·사회 계열별 최우수상을 수여한 송일호(경제학) 교수는 "학생들이 주는 상이라 영예롭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난 해, 평가 결과 전체 순위에서 6위까지 수상했던 Best Teaching 상은 올해는 단과대 및 계열별로 나누어 14명의 교수에게 상을 수여했다. 학교 측은 "상대적 비교없이 나열하는 것보다 계열별로 나누어 더 많은 교수님들과 영감을 나누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류	구분	성명	소속	직급
계열별 최우수	인문/사회 계열	송일호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교수
	자연/공학 계열	김현정	이과대학 반도체학과	부교수
	예체능 계열	김방욱	예술대학 연극학부	교수
	불교대학	우재선	불교대학 불교학부	부교수
단과대학 최우수	문과대학	이기동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이과대학	강태원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
	법과대학	김선정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	이재화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경영대학	이병철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교수
	생명과학대학	유병승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전공	교수
	공과대학	이지호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부교수
	사범대학	조영석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영상미디어대학	박재호	영상미디어대학 영화영상학과	전임강사
	예술대학	김홍록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 "팀위의 팀을 꿈꾸며"

### 축구부 새 사령탑 김종필 감독



우리대학은 신입 축구부 감독으로 김종필(경영90출) 전 화성 신우전자 감독을 김용해 감독 후임으로 지난달 1일 선임했다.

김종필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원한 지도자 해외연수를 처음으로 받은 우리대학 출신이다. 김 감독은 프랑스 리그에 소속된 FC메츠에서 U-18팀 감독을 맡아 리그 우승을 이끌며 지

게 할 것이라고 한다.

신임감독인 그의 눈에 우리대학 축구부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보다 잘할 수 있는데 늘 2% 모자란 느낌을 받는다"고 그는 말한다. 2%는 바로 우리나라 축구의 고질병인 기본기. 김 감독은 프랑스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서 외국선수들과 우리나라 선수들 간의 기본기 차이를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이제 선임된 지 한 달, 신입생 스카우트를 목적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가고 있는 그는 앞으로 대학축구팀 중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를 함께 전한다.

"팀위의 팀, 제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팀입니다" 김 감독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축구팀이다. 절대승자면서 동시에 모두가 좋아하는 팀, 우리대학 축구부가 그러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김 감독의 지도력과 우리 선수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길 기대해본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 총대의원회 비대위 추가 감사결과 발표

###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감사결과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경영대와, 감사진행이 늦어졌던 공과대와 이과대, 교직원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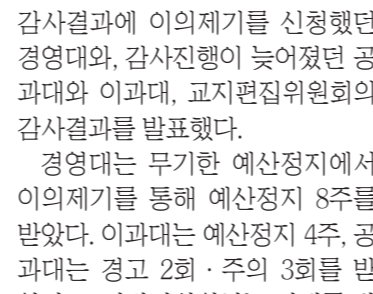
경영대는 무기한 예산정지에서 이의제기를 통해 예산정지 8주를 받았다. 이과대는 예산정지 4주, 공과대는 경고 2회·주의 3회를 받았다. 교직원위원회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정산대는 이번 주 중으로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SAF교원학생설명회 오늘(8일) 4시 개최

SAF교원학생 설명회가 오늘(8일) 오후 4시 다량관세미나실에서 열린다.

SAF협약 대학에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 누계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테니스 동아리 DUTC 전국대회 3위



이번 수상에 대해 DUTC의 회장 이용희(영어통번역3) 군은 "내년 연맹전에는 열심히 노력해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테니스 동아리 대회 중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유일한 전국 대회이다. 총 40여개 대학 58개팀이 참여한 이 대회에 우승은 고려대, 준우승은 강원대가 차지했다.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 18일 경희대와 첫 시합

우리대학 야구부(감독=김하용)가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 '제 58회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며 우리대학 야구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목동 야구경기장에서 경희대와 첫 번째 시합을 가질 예정이다.



신종서 기자 jongseo@dongguk.edu

### 동악로에서 부족한 공간문제, 해법은?

"현재 우리학교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기에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이공계교수들의 경우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나 외부업체 등의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는 데도 불편함이 따른다." A교수의 불멘소이다.

최근 우리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력교류, 정보교환, 공동과제 수행 등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바람도 불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연구공간 부족문제에 대한 불만 역시 차츰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R&D산업팀의 한 관계자는 "정해진 공간 내에서 연구공간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산학협력관 신축, 해환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학내공간을 더욱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학내부지는 늘지 않아 공간 배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산학협력관 등을 기다리는 것은 연구활동에 제약 받고있는 교수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정된 연구공간 내에서 남의 공간을 빼앗지 않으면 내 공간은 없다"는 교수 간 공간

### 회전무대 새로운 유행패션?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엉덩이에 지도가 그려진 바지가 유행이라던데.

무슨 말이고 하니, 비오는 날 우산을 의자에 올려놔 다음 수업에 앉는 사람의 바지가 젖게 된다고. 우산을 고이 집어 책상 옆에 두면지의지를 닦는게 예의가 아닐런지.

이에 대해 본 회전 무대자 왈 "어느새 빗물이 내 바지에 고이고 창피함 무릎쓴 내마음을 울리고 I City~"

### 자랑스런 선배님!

○...한창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어정수 경찰청장.

조계종 총무원장 괴인검문, 경찰복을욕 포스터 모델 등 MB정부와 함께 공직자로서 종교편향적인 행보가 도마위에 올랐는데...

잠깐, 어 정장이 우리대학 출신 아니런가? 선배님, 학창시절엔 스님들과 친하셨나요?

### 우리 집은 어디로?

○...개강 후 능금사랑 뒤편 과방에 간 동국이.

똥 세상이 돼 버린 과방에 입을 다물지 못 했는데.

일고보니 방학 전에 나온 공사 계획을 정작 사용자들이 전달받지 못 했다고.

덕분에 동국이와 그 친구들은 과방에 뒤편 집들을 잇어먹었다는데 이에 화난 동국이 왈 "집주인도 모르는 이사, 이삿짐센터 혼자 다했네"

## 2008년 한가위 귀향버스 추가접수 안내

2008년 한가위 귀향버스를 다음과 같이 추가접수를 실시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추가접수 기간** : 2008. 9. 6(토) - 9. 9(화) / 16:00
- 접수방법**
  - 1) 인터넷 접수 : http://dgucop.dongguk.ac.kr
  - 2) 방문 접수 : 생협사무국(회화관 1층)
- 결제방법**
  - 1) 인터넷 : 접수 후 바로 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2) 방문 접수 : 접수 후 현금납부만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2-2260-8948

##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교양수학 튜터링(개인교습실) 안내

수학과에서는 교양수학의 효율적인 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튜터링(개인교습실)을 운영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기간** : 2008. 09. 08 ~ 2008. 12. 19  
**일시** : 월 ~ 금 오후 2 ~ 5시  
**장소** : 과학관 109호 교양수학 개인교습실  
**문의** : 수학과사무실(02-2260-8712)

## 수 학 과

## 2008 인문주간 사진공모전 '다문화와 삶, 가족과 공동체'

동국대학교 문과대학과 교양교육원에서는 2008년도 인문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다문화와 삶',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주제로 한 사진 작품을 모집합니다.

**사진은** 1. 다문화와 이주의 현실을 포착하거나  
2.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변천을 보여주는 것이면 됩니다.

**크기는** 1. 직접 인화 제출할 경우 제한이 없으며  
2. 파일(JPG, GIF)로 제출할 경우 긴 축 2천 픽셀 이상으로 합니다.

**용모는** 1인당 10편까지 가능하며, 여러 편을 제출할 경우 주제와 관련된 한에서 오래된 사진을 부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몇 편을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하고자 할 경우 포토에세이 식으로 간단한 글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방법**  
1. 방문접수 :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학사운영실(명진관 1층)  
2.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사진 공모전 응모자 재중'이라고 표시할 것)  
3. 파일접수 : lib@dongguk.edu

◆**응모 기간** : 2008년 9월 8일(월)~28일(일)

◆**전시 및 시상** : 2008년 10월 6일(월)~11일(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장  
최우수상 1명 디지털카메라,  
우수상 5명 본인전시작품 옆서100장 제작 증명,  
장려상 10명 USB메모리와  
응모자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처** : 2008 인문주간 주관부서 문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56)

## 문 과 대 학

## 성공 취업을 위한 2008년 3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8년 3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을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목적**  
○ 유행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과정의 이해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유행별 면접실습을 통한 본인의 능력과약과 효과적 면접 전략 수립

**2. 교육내용**  
가. 교육형태 :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차수	일시	인원	비고
2008-2학기	3차	2008. 9. 20(토) 09:00 - 18:00	50명	

다. 교육장소 : 명진관 A103  
라. 프로그램 및 강사

시간	프로그램	내 용	진행 및 강사
08:40-09:00	등록	출석체크 및 교재 배부	취업지원센터
09:00-10:00	면접 특강	면접의 이해 및 면접대비 인터뷰스킬	
10:00-12:00	유행별 면접실습 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전문강사
12:00-13:00	점심	상복원 식당	
13:00-15:00	유행별 면접실습 I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실습 + 코칭) - 면접 Role Play 및 면접훈련	인사 담당
15:00-18:00	인사담당	실전면접 + 피드백 - 집단,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면접	
18:00-18:20	설문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3.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가. 모집대상 : 3, 4학년 및 기졸업자  
나. 모집기간 : 2008. 9. 2(화)~9. 11(목)  
\* 선발인원(50명)의 2배수(100명)까지 선착순 접수

**4. 신청장소**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선발방법** : 접수순서로 선발예정  
**7. 선발자 명단 공고** : 2008. 9. 16(화)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8. 기타사항** : 교육비 전액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2260-3055)로 문의바랍니다.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알래스카 오지 탐사 후기

동료들과 함께 보낸 뜨거웠던 여름

빙하하기 녹이며 내딛은 발길... 꿈과 조우할 땐 '아찔'



▲ 정보 마인을 향해 트레킹을 하는 알래스카 오지 탐사대. 작은 사진은 우리대학 깃발을 든 양희종(경제3) 학생. 사진제공=한국청소년 오지 탐사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을 것만 같은 나라, 4계절 내내 하얗게 눈이 부신 나라, 그곳이 바로 내 상상속의 알래스카였다.

다. 그리고 아이젠을 이용한 도보법을 동행한 대장님과 지도위원님에게 배웠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던 중 가까이서 꿈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그 비싼 곰 스프레이를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여름, 나는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한 '2008 코오롱스포츠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를 통해 알래스카 오지탐사를 다녀왔다.

빙하 사이사이로는 크레바스도 보였다.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다. 사이사이에 계곡 같은 것도 보이며 아래에는 빙하 물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가 울랐던 정보 마인은 원래 계획에 있었던 도노호 봉우리의 차선책이었다. 도노호 봉우리를 뒤로 한 채 우리는 옆에 있는 정보 마인을 오르게 되었다. 도

꿈으로 인한 도노호 등정 포기 알래스카 하면 떠오르는 동물은 곰이다. 오지탐사를 하면서 우리는 곰과 자주 마주쳤다.

랭겔 세인트 국립공원에서 캠프지를 정한 후 우리는 루트 빙하지대 트레킹(목격지가 없는 도보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2008학년도 2학기 도서관 이용시간 안내

기간: 2008. 9. 1(월) ~ 12. 19(금)

Table with columns: 건물, 층, 자료실, 평일, 토요일/일요일. Rows include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민예관).

중앙도서관 학기 중 일요일 개관

중앙도서관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학술서비스 확대와 도서관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8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학기 중 일요일 개관을 시행합니다.

- 1. 개관일: 학기 중 일요일
2. 개관시간: 09:00 ~ 17:00
3. 개관장소: 중앙도서관 전 자료실(법학도서관 및 멀티미디어실 제외)
4. 서비스
가. 일요일 중앙도서관의 각종 시설 이용
나. 학술정보 자료의 열람 및 복사
다. 무인대출기와 무인반납기를 통한 자료의 대출과 반납
5. 기타
가. 일요일 개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나. 복사실은 운영하지 않으며 무인복사기 이용 가능
다. 국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관

지나온 역사의 흔적 『탁류』군산 『채만식문학관』을 찾아서

제6회 도서관문학기행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속의 배경지를 가경하면서 자연환경과 그곳에 따르는 문학적 배경, 그리고 문화유산 등을 볼으로써 독서와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행사명: 지나온 역사의 흔적 『탁류』군산 『채만식문학관』을 찾아서
2. 행사내용: 채만식의 고향인 군산이라는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 『탁류』는 문학적 의의가 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소설 탁류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5월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로 모함당 사기·살인 등 부조리로 얽힌 1930년대의 사회상을 풍자와 냉소로 엮은 자자의 대표작이다. 문학관과 군산 시내를 거닐면서 채만식의 문학적 체취를 감상한다.
3. 신청대상: 모든 동국가족
4. 인 원: 40명(선착순)
5. 행사일시: 2008.9.27(토)(오전9시출발예정)
6. 답사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채만식문학관, 금강철새조망대, 근대역사문화거리, 동국사, 채만식 선생 묘 등 방문
7. 참가비: 1만원
8. 접수처: 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지하2층)
9. 접수기간: 2008.9.1(월) ~ 9.21(월) 09:00 ~ 17:00
10. 공지사항
- 세부일정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참조바람
- 우천 시에도 행사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비는 개별 준비)

\*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와 중정의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서 독립전쟁 준비하며 청춘사른 광복군 흔적 곳곳에



▲ 중경 임시정부 청사의 모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의 기쁨을 처음 다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만남을 어떻게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난여름, 국가보훈처와 대학내일이 공동주관하는 '대학생 중국항일유적 탐방'에 전국의 대학 방송국과 학보사가 26명이 함께 참여해 중국 속 항일 유적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찾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의 수많은 가정집들의 열기실 기한 빨래줄 사이로 마주본 상해 임시정부 청사의 모습은 벽찬 마을 한켠에 잔잔한 마음이 먼저 스며들었다. 18년 동안 260명이 다녀갔다는 이곳 청사는 빛바랜 태극기가 교차해서 걸려 있는 1층 회의실과 2층 김구 선생의 집무실, 좁디좁은 통로와 화장실과 부엌이 딸린 3층 구조였다. 이 좁은 건물 안에서 100명 이상이 운신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 정도다. 한편 임시정부청사 근처 수많은 건물들의 잔해는 상해의 재개발 열풍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

아직 여운이 남아 있는 상해 임시 정부를 뒤로 하고 임시정부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는 중경으로 향한다. 상해를 떠나 중국대륙을 가로 질러 비행기로 2시간 버스로 또 다시 1시간. 고층

아파트와 주택 건물들 사이로 중경 임시정부 청사가 보인다.

중일 전쟁과 일본의 계속되는 탄압, 거기에다 독립운동 노선에 대한 임시정부 내부갈등까지. 이로 인해 임시 정부는 중국 각처로 옮겨 다니게 되고 결국 중경에 마지막 등지를 틀게 된다. 중경의 임시정부 청사는 상해 청사보다 15배나 큰 규모였으며 조직적으로도 분권된 모습을 보였다. 벽을 사이에 두고 대통령 집무실과 외교통상부 그 옆방에는 재정경제부가 있는 형태일까?

하지만 중국 스산성 지진의 영향으로 곳곳에 금이 간 중경 임시정부청사의 모습은 유명 인사들의

방문과 기업들의 후원 간판이 걸려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모습과 달리 어딘지 쓸쓸해 보인다. 이에 중경 임시정부 가경해 관장은 "상해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교통편 또한 용이하지 않아 사람들의 발걸음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경청사의 중요성에 대해 김도형 독립기념관 연구원은 "중경 임시정부의 경우 광복군 창설을 포함한 모든 독립운동을 받아들여 통합적으로 국민들의 독립운동을 통제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광복군을 창설하여 국내로 진격해 독립전쟁을 벌이며 했던 중경 청사. 하지만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며, 우리 광복군이 준비한 독립 전쟁은 무산됐다.

광복군 중에는 20대, 우리포대의 학생들도 함께 했다고 전한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부모 곁을 떠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을 각오했다. 기자단의 손민지(이화 VOICE)양은 "우리포대의 어느 학생처럼 한창 꿈 꾸었을 나이에 그들의 미래는 모두 조국 광복이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그 당시 그들 포대의 학생들은 대학생기자단이란 이름으로 이곳을 찾았다. 자주적인 독립전쟁을 치르겠다는 무산된 광복군의 꿈, 허탈한 그 마음 한 귀퉁이를 알 것만 같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기획연재 - 에코 캠퍼스로의 전환 ① 에코 캠퍼스는 왜 중요한가

# 친환경적인 사회 건설 위한 첫걸음

## 관련 지식습득 · 캠퍼스녹색화 통해 포스트석유시대 준비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온난화, 이상기후 등이 나타나면서 세계는 친환경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도 에코 캠퍼스라고 불리는 친환경 캠퍼스 구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학은 거대한 에너지 및 재화의 소비주체이며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에코 캠퍼스 구축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점을 집중해야 하는지 연재 기획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 글 쓰는 순서
1. 에코 캠퍼스는 왜 중요한가
  2. 해외 대학들의 상황
  3. 제도적 전환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울창한 남산숲은 에코 캠퍼스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잘 맞는다.

불가능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도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부족, 그리고 매장량 감소로 21세기 중반기에는 석유자원이 고갈 될 것이다. 벌써 그 이전인 2010년만 되어도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 이상 상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석유 의존도를 하루빨리 축소시키고 중국에는 석유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한다.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고갈 현상도 문제지만,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는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소위 "더러운 자원"으로 일컬어지는 화석연료는 특정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매장되어 있어, 각국과 초국적 기업들은 이 자원의 확보를 위해 이라크전과 같은 야만적 전쟁도 일으키고,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고, 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조장하고, 자연 생태계도 파괴시킨다. 그리고 그 결과 기상이변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한다. 화석연료는 현대 산업화의 근간이 되어 경제성장을 실현시켰고, 인류에게 화려한 문명과 부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를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가공할 만한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석유시대와 작별을 고해야 한다. 21세기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능동적으로 포스트 석유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리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현실을 통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다.

### 포스트 석유 시대를 위한 시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자명하다. 석유시대의 종말을 대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1970년대의 오일 쇼크 당시부터 석유 이후 시대를 놓고 각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각 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과 시설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건설"을 선진국들은 이미 30년 전에 시작한 정책들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석유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는 에너지 소비 절약이다. 에너지 소비 감소는 그 양만큼 수입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석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로 이와 병행하여, 혹은 선행하여 실현되어야 할 개인과 사회의 의식 전환이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대해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더러운 자원"과 어떻게 이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식화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과 행동은 지구의 미래이자 동시에 나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21세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가정, 사회, 국가, 지구차원의 노



▲ 사진은 지난 6월 5일에 열렸던 '시민화 방지 강연회' 모습. 차교수는 이런 환경 관련 강좌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력과 실천이, 영역별로는 국가, 시민사회, 기업도 함께 동참하여 노력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여기에 대학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대학은 교육과 실천의 장이며, 동시에 가까운 미래의 시민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교육 받은 인재들은 정책 결정, 경영직,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도 하는 사회 주류집단에 속하게 된다. 또한 여론을 주도하고, 법·제도도 확립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탈석유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받고 실천하며, 그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녹색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즉 에코 캠퍼스의 성립조건과 직결되는데, 하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 습득과 의식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캠퍼스를 녹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의 의식화와 지식 습득은 우선 교육을 통해 가능해진다. 실천하기 위해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은 지식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이 탈석유시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지식을 갖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동국대에 이러한 강좌가 얼마나 개설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캠퍼스의 녹색화를 위한 방법들

다음은 캠퍼스의 녹색화이다. 이 개념은 매우 광범위한데,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태양광이나 바이오 메스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 빗물 이용 시설 확충, 캠퍼스에 콘크리트 대신 빗물 투과가 가능한 투수콘과 같은 환경 친화적 물질로의 포장 등도 필요하다.

한국 대학의 건물들은 소위 환경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의 대학과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에너지 과소비, 혹은 에너지 무시형 건물들이 한국 대학에 산재해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수동적 에너지 이용 건물은 태양광의 투사율을 극대화하여 전기 사용

량을 최대한 줄이고, 외풍을 가능한 철저히 차단하여 에너지의 누수를 차단한다. 능동적 이용 건물은 태양광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수요를 충당시키는 것이다. 이 건물들은 외벽이나 지붕에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조명과 난방을 자체 충당한다.

한국의 수많은 대학 중 건물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한 곳은 과연 얼마나 될까?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대학에서 앞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상당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수돗물은 사실 매우 귀한 자원이다. 1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3차 세계대전 이전 "물과의 전쟁"이라고 최근 국제기구에서는 발표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단위당 물 사용 인구가 너무 많고, 일인당 물 사용 양도 선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을 대량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빗물의 이용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음용수는 상수도로, 허드레 물은 빗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특히 화장실 물과 녹지에 뿌리는 정원수는 팽당댐에서 정수장을 통해 공급되는 비탄 상수도 대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정수하여 얼마든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환경의식 생활화를 위해 학교 건물마다 태양광을 이용한 휴대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필수품인 휴대폰을 태양광으로 충전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바이오 메스 시설도 필요하다. 학교의 식당에서는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와 녹지 공간에서 낙엽이나 폐목 등의 유기물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를 적절히 혼합하여 발효시키면 전기 생산은 물론 난방 공급도 가능하며, 부산물인 퇴비를 녹지에 뿌려 비싸고 유해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용화 되어 있는 바이오 메스 시설은 이제 한국에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그 특성상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처리하는데 돈

들이 필요없는 것이다.

다음은 제도적인 측면인데, 일회용 컵 사용을 적극 자제하고, 페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루에도 수 십장씩 나무 끼는 현수막, 그리고 게시판과 바닥을 도배하는 포스터는 정말 불필요하고 낭비적 요인이 많다. 또한 처리과정에서도 재활용 되지 못하고 그냥 폐기처분되는데, 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외국 대학에서는 이렇게 경관을 해치고 낭비적인 현수막과 포스터를 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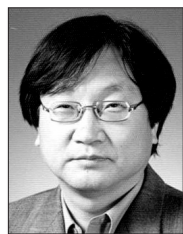
에코 캠퍼스는 자원 순환형이어야 하고, 동시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적 캠퍼스이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이를 학습하고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21세기에는 인류 최대의 과제인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극복하고, 화석연료 이후의 세계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의 에코 캠퍼스화는 너무나도 절실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 모두가 에코 캠퍼스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린다면 21세기에 합류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며, 그 결과는 현재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우리대학 에코 캠퍼스의 현실

동국대학교도 에코 캠퍼스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 한국의 다른 대학들과 다를 바 없다. 건물도 에너지 과소비형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없으며,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이 환경의식과 친환경적 실천을 하기 위한 인프라도 없다.

2007년 동국대학교가 지불한 에너지 사용요금은 22억 8천 450만원이 넘는다. 그 중 전기 사용료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14억 원이 넘는 것이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연평균 10%정도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2억 원 이상 절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고 전기와 난방은 태양광과 태양열, 냉·난방은 지열을 통해, 허드렛물은 빗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동국대에서는 옥상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에코 캠퍼스를 만들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남산 옆에 자리 잡은 동대는 이러한 에코 캠퍼스를 건설하는데 매우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옥상 녹화와 함께 에너지 절약형 강의동을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면 비단 경제적 절약 효과뿐만 아니라 학교의 이미지를 21세기에 걸맞은 것으로 전환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차명제

동국대학교 생명환경연구센터 연구교수

# TESOL 2기 모집

문의 1588-1625

● 교육장소 : 동국대 사회교육원  
모집기간 : 2008. 8. 18. (월) ~ 9. 17. (수)  
모집인원 : 각 Class별 선착순 20명(별도 면접을 통해 선발함)

● 혜택사항  
자격증 수여 : California State University's Certificate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수료 후 기업체 강사, 유명학원, 대학강사로 활동 지원  
미국 NOVA 대학 학점연계  
동국대 대학생 수업료 5%할인

● 동국대 테솔 시간표

과목	반	시간	교육기간	기간
테솔	주말반(토.일)	10:00~18:00	9/20~11/9	8주

●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함께하는 동국대 TESOL 입학시험 무료 이벤트  
동국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기 TESOL과정의 입학 시험 일부(20,000원 상당)를 무료로 실시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8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12시 / 오후 2시~5시  
장소 :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상담실  
신청 : 전화접수(1588-1625) 또는 이메일(center@timesmedia.co.kr) 접수

dongguk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TIMES MEDIA

##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 2008년 2학기 원어민회화 프로그램

● 강의기간 : 9월 - 9월 8일 ~ 9월 30일  
10월 - 10월 6일 ~ 10월 31일  
11월 - 11월 3일 ~ 11월 28일  
12월 - 12월 1일 ~ 12월 19일 (12월은 주4일, 3일간)  
● 수업시간 : 주 3일 월/수/금 매일 1시간씩 (4주간, 한 달 총 12시간) / Writing은 화,목 6주간  
● 접수기간 : 8월 18일부터  
● 접수장소 : 방문접수(혜화관 1층 사무실) 또는 이메일 접수 clinic@dongguk.edu  
● 문의전화 : 2260-3468, 3470, 3474  
● 강의실 : 추후 공고  
● 수강료 : 각 과목 90,000원 (Writing 과목 120,000원)  
● 접수 후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06-754830 : 예금주 동국대학교)

◆ 시간표

시간	매주 월/수/금 4주간	화/목 6주
8:00~9:00	회화 1단계	회화 3단계, 회화 5단계, Debate& Discussion
9:00~10:00	회화 2단계	회화 4단계, 회화 6단계
1:00~2:00	Debate& Discussion	Biz English& Interview
6:00~7:00	회화 1단계	회화 3단계, 회화 5단계, Debate& Discussion
7:00~8:00	회화 2단계	회화 4단계, 회화 6단계

◆ 과목소개

● 회화 : 1~6단계에 따른 수준별 회화 위주 수업  
● Debate&Discussion :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 및 토의 위주 수업  
● Biz English&Interview : 비즈니스 영어 및 영어 면접 대비 수업  
● Writing : 문장, 문단 구조 및 에세이 쓰기 반

\*Level test가 필요한 학생은 English Clinic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2학기 토익, 토플특강 프로그램

● 강의기간 : 1차 - 9월 16일 ~ 10월 24일  
2차 - 11월 3일 ~ 12월 12일  
● 수업시간 : 주 4일 월/화/수/목 매일 1시간씩 (6주간, 총 24시간)  
● 접수기간 : 8월 19일부터  
● 접수장소 : 방문접수(혜화관 1층 사무실) 또는 이메일 접수 clinic@dongguk.edu  
● 문의전화 : 2260-3468, 3470, 3474  
● 강의실 : 추후 공고  
● 수강료 : 120,000원  
● 접수 후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06-754830 : 예금주 동국대학교)

◆ 시간표

시 간	매주 월/화/수/목 6주간
8:00~9:00	토플 종합 (강사명 : 조월연) 토익 종합 (강사명 : 홍소형)
9:00~10:00	토플 기초 (강사명 : 조월연) 토익 기초 (강사명 : 홍소형)

◆ 교재소개

● 토익기초 : 토익백서 Basic (YBM sisa)  
● 토익종합 : ETS TOEIC Test (YBM sisa)  
● 기초토익 : ETS Official guide to the New TOFEL (YBM sisa)  
● 토플종합 : TOFEL iBT Navigator (YBM sisa)

◆ 과목소개

● 토익기초 : 토익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 또는 각 파트별 기본을 다지는 수업  
● 토익종합 : 토익 실전문제 풀이반  
● 기초토익 : 토플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 또는 각 파트별 기본을 다지는 수업  
● 토플종합 : 토플 실전문제 풀이반

# 가라앉는 인문학, 누구의 잘못인가?

## ‘철학콘서트’의 저자 황광우 씨에게 듣는 인문학의 위기



▲ 2008년 네티즌이 선정한 올해의 책 '철학콘서트'의 저자 황광우 작가



▲ 제자들과의 역사기행에 대해 설명하는 황광우 작가

“졸업해서 뭐 먹고 살래?”  
“무슨 놈의 철학이 밥 먹여 주냐? 철학을 했다간 입에 풀칠도 못해”

우리는 흔히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결정된다고 본다. 이 때 내린 결정이 한 사람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위의 대화는 수능을 마치고 한 고교 3학년이 인문학 분야의 한 학과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다. 학생의 적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돈벌이에 유리한 학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고등학교 입시 상담실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와 같이 인문학에 대한 냉담한 반응은 고등학교 내 입시 상담실, 채용 박람회뿐만 아니라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인문학 위기의 현주소

최근 우리대학은 2009학년도 입학 정원 조정안을 지난 6월 최종 확정했다. 그리하여 철학과와 독어문화학과 등 인문학 분야의 학과를 포함한 8개 학과에 대해 정원감축이 이뤄졌다. 인원 감축 대상 학과 학생들은 “쓸모없는 공부를 한다는 식의 시선이 원망스럽다. 대안 없는 위기론만 자꾸 외쳐대니 홀대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인문학 관련 학과생들의 저조한 취업률과 함께 95년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한 학부제와 이중전공제 등의 대학 정책으로 인문학 관련 학과는 통합학, 또는 폐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국가전체 연구개발 투자 예산 가운데 인문학 관련 부분의 지원금은 0.73%에 지나지 않으며, 인문학 교수들이 정부 지원금을 얻기 위한 장기 과제 신청 채택률이 10%에 지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양질의 연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인문학의 위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 황광우 작가, 그는 누구인가

‘실용’과 시장주의를 내세우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인문학 홀대에 관해 ‘철학콘서트’의 저자 황광우 씨는 “대학만큼은 시장주의에 휘둘러서는 안된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의 안식처다”며 인문학을 지켜줘야 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작가는 광주 출생으로 고교시절 반독재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 및 제적을 당했다. 그는 모순된 현실 속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억압 받는 것에 대해 대항하는 학생이었다. 그는 2년 뒤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입학해 ‘삶은 무엇인가’라는 해답을 찾기 위해 고

전을 읽었다. 그는 학생운동으로 인해 두 번째 제적을 당했고 1979년 투옥으로 이어졌다. 그는 감옥 안에서 2년동안의 학습 계획을 세워 동,서양의 고전들을 읽었다. 그는 투옥 중 마주한 고전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사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황작가는 현실 내 인간을 둘러싼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는 1990년대에 진보정당 운동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민주노동당 중앙 연수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광주 ‘다산학원’에서 원장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제자들에게 한달에 고전 한권씩을 읽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전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다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평생 고전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쌓은 정신적 자산 ‘철학 콘서트’는 2006년 네티즌이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뽑혀 그의 철학에 대한 열정이 많은 독자들에게 인정받았다.

### “인문학, 정부의 지원 절실”

그는 인문학 뿐만 아니라 학문 전체가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취직과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풍토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인문학 뿐만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의 정신이 천대 받는 것이 현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1970년대 가난을 면하기 위한 성장논리는 이해하지만, 경제 성장을 이룩한 현재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벌이가 되는 학문만을 지원해 주기 보다는 인간을 위한 학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문학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 논의에 관해 대학 측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인문학 관련 학과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문제로 허덕이는 대학 측은 어쩔 수 없이 인문감축과 폐과를 단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 측의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인문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생존경쟁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물질과 정신의 부조화 상태를 보인다. 이런 물질과 정신의 부조화 상태는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위기를 부른다. 정신적 항상성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이라며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 인문학의 잠재력과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인문학의 위기가 경제학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이 인문학이라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했다. 더불어 응용학문이 단기간에 이익창출을 한다면 인문학은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장기적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불교 철학을 필두로 한 전통적 인문학이 강세인 동국대학교의 특징 또한 새로운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 철학 결집대회가 우리 사회 내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동국대에서 마련한다면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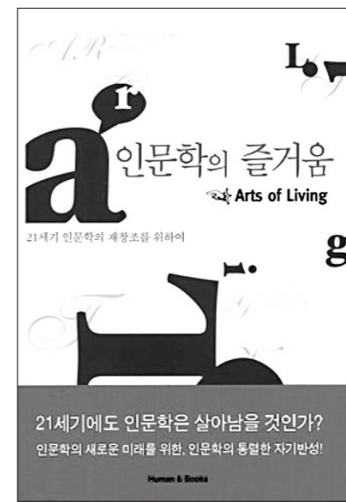
그는 이러한 인문학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대해 강조하며, 나아가야 할 현실적 방향도 같이 제시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인문학 관련 도서를 기피하는 상황을 들며, 정부가 고전읽기 대회를 주최하여 고전을 읽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당국이 대학 입학시험에 고전관련 시험을 추가해 읽어야 할 고전목록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각 학교에 문학, 역사, 철학 전공자가 고전읽기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사회는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선택의 오류’를 범한 사례인양 바라본다. 그러나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라는 조언으로 인문학도들을 격려했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화두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가 인간적 가치를 회생시킬 기회 또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 책소개

### 인문학의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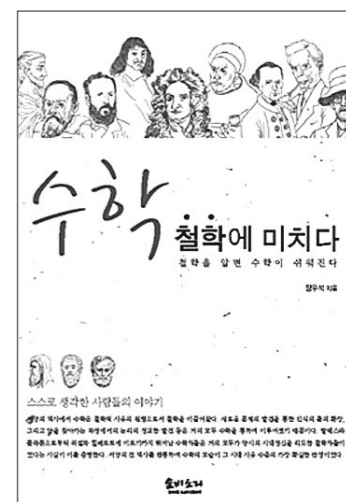
인문학의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 ‘인문학의 즐거움’이라는 책은 인문학 내부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는다. 인간을 연구하고 삶의 의미를 고찰하는 인문학이 정작 사람과 동떨어진 학문이 됐다는 것이다.

저자 커트 스펠라이어(미국 리트러스대·영문학)

21세기에 인문학은 살아남을 것인가? 인문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인문학의 통합한 자기반성!

저자는 오늘날의 인문학은 삶의 예술이어야 하고, 이때의 예술은 비평, 철학, 역사와 같은 것이 아닌 경험으로서의 예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나치게 텍스트에만 몰입해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인문학 위기의 돌파구라고 강변한다. 이 책은 위기에 빠진 인문학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 수학, 철학에 미치다



‘수학, 철학에 미치다’는 문과적인 철학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듯한 이과적인 수학을 철학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저자는 철학이라는 중심축을 가지고 수학을 다뤄보면, 개별학문으로 이해했을 때 느껴졌던 공허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면서 모든 학문의 근저에는 철학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철학자들은 수학자이자 예술가, 정치학자였다.

철학을 통해서 본 수학은 보다 이해하기 쉬운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수학과 철학사 상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나 의미 있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철학과 수학은 어렵고 학문적이다’라는 독자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흥미 있는 주제로써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상담]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TEL : 2260-3380 FAX : 2260-3385 http://www.writing.dongguk.edu

### 사고의 향연

## 思考몽지, 제2회 동국 글쓰기 아카데미

※ 이 프로그램은 ‘통합인문학 기반의 차세대 문화인재 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시 ■ 2008년 9월 16일(화) - 10월 9일(목) \*강좌당 주1일 1회 2시간(4주 8시간)
- 장소 ■ 문화관
- 강좌 ■ 제1영역: 보고서 작성법 5강좌/제2영역: 외국인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2강좌/제3영역: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글쓰기 5강좌

	제1영역 보고서 작성법	제2영역 외국인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제3영역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글쓰기
강좌	일반 보고서 작성법 1 ■오대형(국어국문학과 강사)/화/18:00-20:00/K302 일반 보고서 작성법 2 ■심해경(국어국문학과 강사)/수/18:00-20:00/K205 조사 및 답사 보고서 작성법 ■허윤정(사회학과 강사)/목/18:00-20:00/K301 이과생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유보영(화학공학과 강사)/목/18:00-20:00/K303 예술 보고서 작성법 ■김해련(국어교육과 강사)/목/18:00-20:00/K304	제2부분: 외국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김영원(한국어교육센터 강사)/화/18:00-20:00/K305 외국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김영원(한국어교육센터 강사) 수업시간: 18:00-20:00(화요일) 외국인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최유권(한국어교육센터 전임강사)/수/18:00-20:00/K301 외국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작성법 ■김영원(한국어교육센터 강사) 수업시간: 18:00-20:00(수요일)	선문당(禪問堂)의 세계 혹은 새로운 글쓰기 ■김호규(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화/18:00-20:00/K211 조셉 콘라트의 『암흑의 핵심』과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강민건(영어영문학과 강사)/화/19:00-21:00/K212 『시계태엽 오렌지』 감독과 비판적 글쓰기 ■이철호(문화학술원 전임연구원)/목/18:00-20:00/K305 『장자』(莊子)와 비판적 사고 ■김현수(철학과 강사)/수/18:00-20:00/K203 마이너리티를 위하여-이육(李奎) 감독과 비판적 글쓰기 ■김수연(국어국문학과 강사)/화/18:00-20:00/K202

- ◆ 글쓰기 아카데미 수강 신청 방법 ◆
- 방법■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수강 등록 후 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기간: 2008년 9월 8일(월)-2008년 9월 12일(금)) \*각 강좌별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 공지
-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성명, 학과, 학번,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강사명)
-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의계획서를 참조하여 주 텍스트를 강의 전에 반드시 읽어 오기 바랍니다.
- \*글쓰기 아카데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 想像예찬, 2008-2 동국 글쓰기 공모전

※ 이 프로그램은 ‘통합인문학 기반의 차세대 문화인재 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	제2회 특사와 글쓰기	제3회 동국 우수 보고서	“여성과 딸깍발이” 제1회 중구 문화지리 글쓰기 공모	공모	제3회 동국 우수 졸업 논문 지원	제3기 보고서 집중상담 프로그램지원
	자격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재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교강사		재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교강사	자격
공모 기간	10월 1일 ~ 12월 10일 마감			공모 기간	9월 15일 ~ 10월 5일 마감	
지 원 공 모	호모 투덴스   요한 호이징하 어머니의 죽음-수전 손택의 마지막 순간들   데이비드 리프 시대의 중언저리   프리모 레비를 찾아서   서경식 섹코노비츠   아미타미 션 독도견문록   주강현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프란츠 파농 남원고사   이윤석, 최기승 옮김 그들고 인생, 그들고 사랑   도법 양자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쉽고 뜻 깊은 불교이야기   김달진			지 원 공 모	주제: 남산 - 자유 형식 - 원고지 50매 내외 (A4 5-8매) * 사진 2-4장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 (300,000원) 우수상 3명 (각 200,000원) 장려상 6명 (각 100,000원)	최우수상 3명 (부분별 300,000원) 우수상 6명 (부분별 200,000원) 장려상 15명 (부분별 100,000원)	최우수상 1명 (300,000원) 우수상 3명 (각 200,000원) 장려상 6명 (각 100,000원)	지 원 공 모	5명 논문지원금 각 300,000원	10명 (소정의 기념품 지급)

- 응모방법■ 글쓰기 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기 타■ 제출 원고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

달하나천강에



조 상 식  
교육학과 조교수

교육감의 정치편향, 정당한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책 교육감이 8월 말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에게 "보수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얼마 전엔 교육청의 공적인 전자회신 통로를 활용해 기독교 종교 활동과 관련된 개인적인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수장으로서 올바르게 교육하는 데는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이다. 이 기준은 단순히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갖추어야만 하는 덕목에 불과하지 않고 헌법적 사안이기도 해서 더욱 문제가 된다.

다. 사적 개인과 공적 개인의 구분은 근대의 탁월한 발견이다. 사인(私人)으로서 자유와 공인(公人)으로서 책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근대 문명의 관점에서 거의 '야만적인'(!) 행동에 해당된다. 공 교육감의 발언은 거의 정당인의 발언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노골적인 정치적 당파성의 표현이다. 또한 종교적으로 편향적인 처신도 그러한 공인의 책무를 망각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여주듯이, '교육의 정치화' 현상은 교육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었다. 이에 비한다면 공인으로서 종교적 중립성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확고히 합의된 원칙에 속한다. 서구 사회가 과거 종교 갈등으로 말미암아 겪은 아픔을 사회적 인 대타협의 수준에서 만들어 낸 일종의 불문율에 가깝다. 서구가 그토록 자랑하는 관용이라는 미덕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공인의 종교활동 또한 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시키는 전통이 만들어졌

다. 기독교 국가인 유럽 제국(諸國)에서조차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기독교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편향적인 행동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 교육감의 처신이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덕목을 위반했다는 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복지의 성격이 강한 초·중·고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이 특정 정파, 종파, 혹은 계층에 편향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을 때 생기는 파국적인 결말이다. 국제중 실험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의 일련의 교육정책이 계층 편향적이라는 지적은 공 교육감이 보이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과 완전히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 사회를 통합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라는 점에서 큰 걱정이다. 공 교육감에 간곡히 부탁한다. 공인으로서 원칙을 지키길. 그리고 특정한 기독교도로서의 신앙생활과 한나라당 지지자로서 정치적 신념은 사적인 영역에서 맑게 향유하기를.

동문칼럼



황 인 원  
국문 88졸업  
북경 왕징신청병원 원장

중국 대륙보다 드넓은 '우리'를 생각하자

'100년의 꿈'이라던 베이징 하계 올림픽이 그 '화려하고 장엄한' 막을 내렸다. 어떤 이들은 상찬을, 또 어떤 이들은 혹평을 더해 13억 중국인들의 꿈과 열정을 평가했다.

서로 다른 평가에 관계없이 올림픽 개최와 폐막식과 전체 과정을 통해 중국인들이 보여준 주제는 지난 한 세기 이상 세계의 중심에서 비껴서 있던 '중화민족의 정신, 문화적 자부심'이라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더 크게는 동양 전체를 대표해 서양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일대 반격이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150만 명의 자원봉사자 중 핵심인력은 대부분 1980년대 출생한 대학생이다. 이곳에서는 이들을 '축복받은 세대'라고 부른다. 1970년대 후반 시작된 한 자녀 갖기 인구정책으로 인해 소위 '작은 황제'로 불리며 자란 외동 자녀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1950년대 태어나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라는 혹독한 역사적 시련을 겪고 자란 그들의

부모와는 많이 다른 은실 속의 삶을 살아왔기에 기성세대는 많은 우려를 해왔다. 그런 그들이 올림픽이라는 큰 경험을 통해 세상에 거듭난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성과를 거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 하겠다. 이 결과는 반한(反韓), 심지어 혐한(嫌韓)이라는 현지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600여명의 현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한국인 올림픽 지원단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은데 그들 대부분이 북경에서 유학하고 있는 1980년대 출생한 젊은이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 또한 1950년대에 태어나 1970~80년대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의 일선에서 땀을 바쳐온 세대이다. 1980년대 출생 세대 또한 2000년대 대학생활 시기 뚜렷한 사회의식 없이 취업전선에서 심각하게 소인하거나 좌절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유학 생활 동안 경험했던 이번 올림픽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을 수 있다. 이번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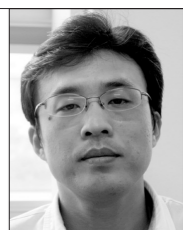
픽 기간 동안 북경을 다녀간 동국대 취재기자단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시작은 이제부터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중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자기자랑 위주여서 대륙사람에게 기대했던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은 보기 쉽지 않았다. 올림픽 주제가조차 '나'와 '너'는 말하면서 또 다른 '우리'는 없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랄까. 북국열도인 일본도 못했고, 발전하는 대륙 중국도 실현하기 어려운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를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국 경기장 곳곳에서 응원하고 봉사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 보았다. 우리 모두 좀 더 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큰 생각과 넓은 가슴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동대신문 비평



정 응 국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기사의 중요도 고려, 통일된 편집 필요해

동대신문사에서 동대신문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뜨겁했다. 명색이 신문방송학과 교수인데 동대신문을 주의를 깊게 읽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불성실함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 기회에 한 번 제대로 읽기로 마음을 먹고 차근차근 읽어 보았다. 교수의 지위를 떠나 한 명의 독자로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부디 동대신문의 발전을 바라는 애정의 발로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먼저, 기사의 중요도에 비해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진 기사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번에서 다루었던 2008년 입학정원 조정안에 관한 기사의 경우 1번 머리기사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 학기 동안 학교, 교수,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사안인 만

큼 보도기사뿐만 아니라 해설기사를 같이 내보내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해가 엇갈리는 각 집단의 의견을 균형있게 포함시키고 조정안이 앞으로 학과 및 학교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등이 전문가의 해설로 곁들여졌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둘째, 지난 호가 개강 특집호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편집이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관련 기사들이 서로 다른 지면에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기사들 간의 통일성이 부족했다. 여러곳에 분산 배치된 학사관련 정보는 한 묶음으로 보도하거나, 이순신 공연, 목격가요제, 문과대 인문주간 행사 등은 문화관련 정보로 분류하여 같이 보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독자가 한 눈에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있게

배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퇴임교수와 신규교수를 소개하는 특집란의 경우 일단 보기에도 너무 단조롭고 읽기는 더 지루해 보인다.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한 마디로 재미없다. 차라리 퇴임교수님과의 인터뷰를 기획해서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신입교수님들에게는 학생들이 묻고 싶은 재미있는 질문들을 모아서 10분 10답 같은 형식으로 지면을 구성했다면 좀 더 역동감 있는 페이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나열하였지만 발간만으로 존재감을 발하는 동대신문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보리수



홍 사 성  
불교평론 편집위원

걱정스러운 종교 독선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인도에는 종교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종교가 많았다. '육사외도(六師外道)'로 불리는 유력한 종교 외에도 92종의 사견(邪見)이 있었다. 이들은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종교를 깎아내렸다. 음모와 손괴, 살상도 마다하지 않았다. 외도들이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자기종교에 대한 '절대적 믿음' 때문이었다.

이들만이 아니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종교의 주장을 '진리'라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일부 종교는 "진리를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배척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나 최근의 중동 전쟁, 탈레반의 바미안 석불파괴와 같은 만행은 그 뿌리가 극단적 종교독선에 있

다. 이에 비해 불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비합리적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독선은 없다. 이런 입장이 잘 나타난 경전이 장아함 16권 '나형범지경(禪形梵志經)'이다.

어느 날 부처님에게 벌거숭이 외도가 찾아와 '당신은 다른 종교 수행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고행하는 사람들은 비난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진 적이 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라도 나의 가르침과 같은 것도 많다. 그런데 어찌 다른 종교인을 비방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요컨대 다른 종교에도 훌륭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종교를 불문하고 그가 훌륭하다면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보시는

누구에게나 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나 신에게 해야 복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증야한 32권 '우팔리경(優婆塞經)'의 말씀이 그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는 토인비의 지적대로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종교'였다. 그러나 그 관용성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장담이 어렵다.

법당 앞에서까지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광신자들의 도발 때문이다. 게다가 '장로 대통령' 이명박 정부는 특정 세력 중심의 인사편중과 종교편향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고소영 정권'이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지난 8월27일 열린 범불교대회에는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스럽다.

기고글



박 상 민  
법4

미국대학을 통해서 본 애교심

지난 7월 해외탐방장학생에 뽑혀서 팀원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로스쿨들을 견학하였다.

노스웨스턴대학 로스쿨과 시카고대학 로스쿨을 견학하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 것은 그 대학의 최신식 시설이나 유명한 교수들, 학교의 name value가 아니라, 바로 학교 곳곳에 자리를 잡은 게시물이었다.

노스웨스턴대학 로스쿨의 경우 가이드가 우리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강의실이나 특정 장소를 위주로 자랑을 하며 소개해주었고, 간략한 설명도 덧붙여 주었다.

로스쿨은 3개의 건물로 이루어졌는데, 그 건물의 이름은 학교에 재직했던 유명한 교수와 설립자, 졸업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또한 강의실도 정치가나 학자의 정신을 이어 받는 취지에서 그들의 이름을 강의실 명으로 하거나, 기부를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의 이름을 강의실 명으로 하였다. 세미나실이나, 도서관의 자리마다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복도에는 학교의

역사와 업적에 대한 글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유명한 교수나, 졸업생의 글과 사진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시카고대학 로스쿨의 경우에도 학교의 역사와 졸업생들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인디애나대학 로스쿨의 경우에는 기부자들의 이름을 보도블럭에 새겨 놓고, 졸업생들의 사진과 업적을 전시해놓은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었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어떤가. 학교의 각 건물들이 명명되는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의 유래를 아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중앙도서관 입구 벽면에 부조된 동판만으로도 우리학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지 의문이 든다. 100주년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학이 그 빛나는 전통과 역사를 여행하며 퇴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애교심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편입을 통해 다른 대학으로 이합하는 학생의 수를 줄여 우수한

인재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학교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도 학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팔정도에는 보현보살상이나 석가모니불의 의미, 학교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건물 이름의 뜻, 자랑스런 졸업생과 교수님들의 자취 등을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살아 있는 학교의 역사를 접할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애교심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만해관 계단 벽과 2층 휴게실, 해화관 앞 쉼터와 후문의 풀담, 학림관 계단, 해화문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학교의 역사나 자랑을 게시해 보자. 우리대학 학생들의 잠재 의식 속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면 졸업 후에도 한번 더 학교를 생각하고, 학교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4회 동국대학교 목석가요제. 행사 일정: 9월 3일~9월 9일 본교 홈페이지. 1차예선: 9월 11일(목), 2차예선: 9월 19일(금). 본선 일정: 10월 2일(목) 늦은 6시, 만해광장 특설무대. 사회: 이정민이민우서, 윤영빈. 초대가수: MC몽, 브라운아이드걸스, MtoM. 시상 대상 1등: 트로피, 장학금 100만원 / 금상 1등: 트로피, 장학금 80만원 / 은상 1등: 트로피, 장학금 70만원 / 동상 1등: 트로피, 장학금 50만원 / 인기상 1등: 장학금 50만원. 후원: 중앙생회(비), DUBS(교육방송국) / 후원: 학생서비스팀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9/8) 돈육김치찌개(2000)/쇠고기담면볶음(2200)/돈가스(2500). 화(9/9) 탕수이-2장(2000)/참치육수수육볶음(2000)/참치육수수육볶음(3000). 수(9/10) 번성육개장(2000)/떡조림(2200)/고추마늘가스(3000). 목(9/11) 부대찌개(2000)/중국식볶음밥(2000)/치킨가스(2500). 금(9/12) 참치국밥(2000)/잡채덮밥(2000)/주제돈가스(3000). 상록원: 월(9/8) 해물경단(2000)/고추마늘가스(3000)/튀김버섯밥(2200). 화(9/9) 닭도리탕(2000)/삼복익정식(2500)/쇠고기볶음밥(2000). 수(9/10) 삼치대리이끼(2000)/치즈돈가스(3000)/새싹참치김치볶음밥(2200). 목(9/11) 오징어떡볶음(2000)/수제돈가스(3000)/제육덮밥(2200). 금(9/12) 두부김치(2000)/참치스테이크(2500)/신채비빔밥(2000). 아리수: 월(9/8) 햄스테이크(2000)/해물덮밥(2200). 화(9/9) 아묵매운탕(2000)/오징어상추비빔밥(2200). 수(9/10) 찜닭(2000)/참치김치덮밥(2200). 목(9/11) 육개장(2000)/떡갈비덮밥(2200). 금(9/12) 돈갈비김치찌개(2000)/제육덮밥(2200).

논단

# 인터넷 역기능, 규제보다 자율 해결 바람직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한국에서 인터넷이 중요한 e-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임을 확인해 주었다. 집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시민들과 네티즌은 토론의 광장으로 들어갔고 그 속에서 새로운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이 되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토론과 시민참여의 공간이다. 또한 흥미로운 논쟁과 담론이 생산되는 정갈로 참여지향적인 미디어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창발성(emergence)의 공간인 인터넷도 반드시 훌륭하게 작동한 것만은 아니다. 일부이지만 의미 없는 댓글이나 욕설, 감정의 배설구 등 현상은 이번 촛불집회 과정에서 나타난 바다. 심하게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등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에 관한 무책임한 참여증가가 타인의 인권을 훼손한다는 점은 인터넷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 인터넷 규제의 시작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에 놀라, 일부 부정적인 문제를 부풀려 규제하려 하고 있다. 7월에 쏟아져 나온 인터넷 미디어와 토론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정책은 좋은 의미로 해석해도 과한 느낌이 있다. 반드시 인터넷 공간이 항상 깨끗해야만 하는 것

은 아니다. 이유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오프라인에서의 감정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한다고 인터넷의 긍정적인 기능마저 제한하는 정책은 자칫 민주주의의 가치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사실 인터넷 규제 담론은 몇 년 전부터 가시화 되었다. 순기능 외에도 익명성을 무기로 한 인신공격, 비방 등의 역기능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공직선거법>으로, 일상적인 시기에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정책을 폈다. 그리고 올해 들어 그 강도는 세부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확대추세에 있다. 정부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규제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 7월 2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일명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와 포털의 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규제 강화에 따른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된 내용은, 첫째, 포털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제 요청할 경우 즉각 임시 삭제를 하며, 둘째,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인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되었던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셋째, 포털과 P2P 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이다.

## 정보망명자 양산 우려

일반적으로 정책을 실시하여 규제를 강화한다면 필요성과 함께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랬을 때 그 정책은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으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의 일단은 이에 관한 심사숙고 없이 문제가 생기니 일단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만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 예시로 지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일부 인터넷 글쓰기와 토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규제 논의에서 이용자인 네티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방주의적인 정책 결정이며 지난 촛불집회에서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소용 없는 정부라는 비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다름 아니다.

사용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일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주도되는 정책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네티즌은 한국의 인터넷 공간을 떠나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으로 "정보망명"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 이런 움직임은 토론방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국내의 정치상황에 의해 자유로운 시민 참여 토론방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큰 수치일 수밖에 없다.

## 합리적인 규제와 진흥 필요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과 패시성(swarm intelligence)으로 표현되는 창발적인 공간이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특성을 살리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즉 무조건적으로 차단하고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창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굳이 강제나 규제가 아닌 자유로운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을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EU(유럽연합)나 일본에서도 규제 모델이 오랜 논의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우리의 차이점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방식인 실명제 확대를 통해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고, 다른 방식은 규범 확립과 자율규제(self-regulation) 장치를 활용하려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 중요한 민주주의 기본권과 웹 2.0의 정신인 참여와 개방, 공유의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규제논의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의 심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심은 정부 혼자만의 독단이 아니라 사용자 네티즌과 시민사회, 운영자, 시장 관계자 등이 모두 나서서 소통의 공간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사설

# 세계 개편안의 문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1일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5년간 26조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년 세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환영할 수도 있으면서, 역시나 '특권층'에게 절대 유리한 모습이다.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세 혜택은 서민보다는 기업, 특권층에 맞춰져 있다. 인화되는 세율의 규모는 특권층과 서민 모두 같지만 절대소득이 큰 특권층은 훨씬 큰 폭의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큰 폭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서민, 특히 저소득층이 짊어진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복지에 투자되는 세금을 조정하려고 나섰다. 세계의 기본 목적인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사회통합을 실천할 유일한 후보라던 작년 모습과 사뭇 다르다.

경제를 책임진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KBS '단박인터뷰'를 통해 부자 감세론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자와 서민이 똑같이 재산을 나눠먹자는 것인데 소련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이나 양극화해소와 같은 단어는 분명 정부와는 거리가 먼 단어인 듯하다.

세계개편안은 더군다나 명분이 서지 않는 정책이다. 정부는 세금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특권층의 투자 확충을 기대 하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에게 그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왔느냐는 것이다. 가장 비근한 예는 이명박 대통령 가까이서 잤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내사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 공권 로비 파문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의 주변 친·인척들마저 위법행위로 신뢰를 잃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지도층, 특권층을 믿을 수 있겠는가.

9월 위기설과 고유가, 고환율로 신용하는 한국경제에 현재 필요한 것은 효과가 불투명한 감세정책이 아니다. 안정된 국정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회복이 과제여야 할 것이다.

정명근 gmg@naver.com

만평



메아리

▲신해통공(辛亥通共)이란 정조 15년, 공식적으로 금난전권(禁亂塵權)을 금지시킨 조치를 말한다. 금난전권이라 함은 세금을 내는 댓가로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를 사전 상인에게 준 특권이다. 조선 시대, 금난전권을 가진 사전 상인들은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없는 난전을 탄압하며 독과점 체제로 점점 비대해지게 된다. 이 독과점을 해체하고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정조의 '신해통공'은 힘없는 난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철폐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표 '공정거래법'으로 비유된다.

▲도시의 재래시장도 시골의 그것과 못지않던 시절이 있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비좁은 골목 안은 나뭇잎이 찬거리들을 머리에 이고 온 할머니와 아주머니들로 가득 찼다. 그 작은 시장 골목에서는 단 돈 몇 백 원을 놓고 할머니들간에 흥정이 벌어지곤 했다. 어른들의 이러한

# 신해통공(辛亥通共)

흥정 과정 하나에서부터 덩이 있고 예누리가 있는 정경과 따뜻한 재래시장의 풍경은 단순히 물건이 오고 가는 장을 넘어 '정'이 오가는 공간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래시장이 변화하는 생활습관과 대형마트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추어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용자사업, 시장규제 완화, 시설의 현대화 작업 등 많은 대책들을 발표하고 철회하기를 반복했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 없이는 법령 또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 하에, 주차장과 냉동 창고 건설 등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선심성 인프라 구축이 결국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지금과 같은 위기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은 대형자본이 개입한 대형마트들의 난립에 있다. 정부의 규제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대형마트들은 재래시장이나 주변 소규모 상권과의 조율이나 배려 없이 상생과 공존의 개념이 전무한 상도덕을 보여줬다. 수많은 대형 마트들은 이제는 유통 독점을 넘어서 제조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 낮은 가격을 무기로 대형마트를 채워나가는 PB상품의 등장은 이제 대형자본이 쌀, 휴지, 우유 등 생활에 밀접한 제조업까지도 독점을 형성하겠다는 음

직임으로 해석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형마트들은 고가의 예약 주문 상품 준비로 정신이 없고, 썰렁한 우리네 재래시장은 추석대목이란 말을 잊은 지 오래다. 힘없는 난전들을 위해 조선시대에도 사전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었다. 대형자본, 대기업들에게 특권 아닌 특권을 쥐어주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분명 역행하고 있다. 서민 경제를 돌보는 일은 추석민심을 살핀다는 명목 하에 근처 재래시장을 돌아보는 일회성 순회가 아닌, 공정거래법을 준수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일 것이다.

윤혜경 대학부장

zzenobia@dongguk.edu



동국가족 여러분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중추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주신 동국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건강식품인 <동옥고>로 더위에 지친 어린이나 수험생, 노약자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주세요.

1kg/500g/300g 3종류가 있습니다.  
동국가족을 위한 특별할인(30~40%)적용.



동옥식품 부설 약용군자원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 민 용)

문의 전화: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천연 특산품의  
인삼·복령·천마·지황·꿀로 만든

## 동옥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옥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동옥고(東玉膏)는!

한의학인 동의보감에 기록·전수 되어오는 경옥고를 기초로 하고, 특히 천마를 첨가하여 현대적으로 개량된 방식으로 생산한 건강증진용 식품입니다.  
주재료는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을 재료로 하였으므로, 우리들의 생체 활력을 촉진하고, 성장기 어린이의 지능발달이나, 노인 질병의 예방과 관련한 면역기능 강화, 피부의 윤택함을 더해주고, 변비해소 및 각종 성인병 예방과 건강유지에 좋습니다.

### 원재료 및 함량



동국가족을 위한  
한정특별할인가

용량	판매정가	할인판매가
1kg	25만원	16만원
500g	15만원	9만원
300g	9만원	6만원

인삼의 운운한향과 꿀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품목허가번호 000001

### 최초와 최고라는 타이틀 동굴탐험연구회가 걸어온 길

국내 동굴에 대한 학술조사와 보존을 목적으로, 동굴의 역사와 함께 걸어 나가겠다는 아무진 포부로 결성된 동굴탐험연구회는 1969년, 국내 대학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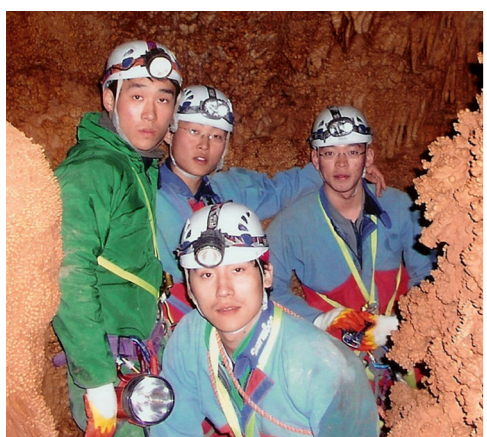
"선배들이 워낙 탄탄하게 기초 공사를 잘 다져 주신데다 지금 활동하는 YB들도 잘 따라주는 덕택에 국내 동굴 자료 중에는 없는 자료가 없어요"라며 "오히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자료 외에 새로운 동굴을 발견한다는 게 더 신기한 일일걸요"

OB와 YB간의 끈끈한 가족애가 만들어 낸 업적, 직접 부딪히며 겪어 온 척오의 결과 뒤 맛보게 된 당당한 자부심이다.

국내 최초, 그리고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동굴탐험연구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는 '환선굴'의 측량도를 그려 넘긴 장본인들도, 갈리외라는 화석 벌레를 발견해 '동대갈리외'라는 명칭으로 학계에 등록되는 영광을 기록한 이들도 모두 역대 동굴탐험연구회의 대원들이다.

# 동굴속 '길 없는 길' 찾아 나선 젊은 열정들

## 우리대학 동굴탐험연구회와 함께한 강릉 '임곡굴' 탐험기



▲ 동굴탐험연구회 회원들의 석회동굴 탐험 모습



▲ 동굴탐험 장비들

사람들마다 세상을 나누는 기준은 각기 다르다. 패러글라이딩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들에게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나뉘는 것이며, 스킨스쿠버처럼 바다 속을 누비는 이들에게 세상은 바다와 땅으로 나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같은 땅 위를 동굴 안과 동굴 밖이라는 세상으로 구분하는 이들이 있다. '동굴탐험연구회' 동아리 사람들. 그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세계를 찾아 강릉도 강릉시 임곡 2리에 위치한 '임곡굴' 탐험에 동행했다.

### '길 없는 길'의 연속, 탐험

대개의 동굴탐험이라 하면 벽이나 천장에 걸린 조명이 비추는 대로, 잘 닦여진 길대로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구경할 수 있는 관광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다. 아마 동굴탐험연구회식의 동굴탐험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학교 동굴탐험연구회가 보여주는 동굴탐험은 분명히 '관광'의 개념과는 다른 그야말로 '탐험'이다. 탐험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욕구가 아니고서는 단지 로프 하나에만 몸을 의지한 채 자신의 손과 발을 전부 삼아 탐험하기란 꽤나 힘든 선택이 될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동굴의 위치 파악을 위해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와 지도가 동원된다. 탐험 대원들은 지도를 통해 대략적인 동굴의 위치를 알아내고 동굴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준비 체크에 여념이 없다. 동굴 내부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시 '길'

의 역할을 해 줄 튼튼한 로프를 가방에 챙겨 넣고 길의 방향을 잡아 줄 측량도라는 동굴 지도를 지퍼백에 담아 넣는다. 만약 발생할 지도 모를 급격한 체력 저하에 대비해 초콜릿과 같은 간단한 음식도 준비한다. 동굴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물을 챙긴 뒤에는 방수와 체온유지의 기능을 갖춘 탐험복을 입고 헬멧을 쓴다. 헬멧을 쓴 뒤에는 헬멧에 헤드랜턴(전등)을 끼우고 랜턴의 상태를 확인한다. 랜턴의 여분 배터리 또한 램프로 포장해 탐험복 속의 주머니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탐험 준비를 마친 후 길을 나선다.

### GPS, 측량도는 필수 장비

야영장에서부터 한참을 걸어 내려와 동굴이 자리하고 있을 산의 위치부터 찾는다. 일반인들에게는 개방이 되지 않은 동굴, 그 동굴의 입구를 찾는 시작부터가 결코 만만치가 않다. "아, 없네", "찾았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입구를 찾아 헤매길 한 참,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며 탐험대원 유주상(사회환경시스템3) 군의 발걸음이 분주해진다. 기껏해야 어린아이 한 명이, 그것도 누워야만 지나갈 수 있을 법한 공간 앞에서 그는 입구를 발견했다고 소리쳤다. 기껏해야 큰 바위 두 개 사이의 틈새 같지만 한 입구였기에 "입구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동굴탐험연구회 동아리의 탐험에 동행하고 싶다는 말을 처음 건넬 때 김석운 대장이 했던

대답이 떠올랐다. "자신 있으세요? 왜 하필 이렇게 힘든 취재를 고르셨어요" 진심어린 걱정으로 한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야영장에서부터 매고 내려 온 가방들을 내려놓은 채 탐험대원들이 먼저 동굴 입구의 바닥에 누워 등과 발을 이용해 내려가기 시작한다. 등과 발로 흙바닥을 밀어 가며 영하 속 순식간에 움직이는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간 주인공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잠시 뒤 대원들이 들어간 통로로 모든 짐이 전달되고 "들어오세요"라는 말이 통로를 통해 전해진다.

### 자신의 손과 발만 믿어라

이번 탐험의 대장 조익수(신방4) 군은 "자신의 손과 발만 믿으시면 돼요. 자신의 신체를 믿지 못하고서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요"라며 기자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다. 동굴 내에서는 로프도, 머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착용한다는 헬멧도,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100%의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 내 손이 지탱하고 내 발이 디디는 이 지점이 안전하리라는 믿음만이 가장 우수한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되는 것이다.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 흐르는 물소리와 때 이른 한겨울이라도 찾아온 듯 9℃의 냉랭한 공기에 입김이 저절로 나온다.

자연은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했던 말 그 실전은 바로 이렇게. 탐험대장은 종유석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적어도 50년이라며 동굴 안에서

어딘가를 짚을 때에는 항상 조심하라는 당부들 아까지 않는다. 인위적인 힘 하나 보태지 않고 자연이 그저 세월을 도구 삼아 만들어 놓은 동굴. 자칫 하다가는 수 십 년간의 세월을 깨 버리게 된다. 탐험을 하는 이들의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동굴의 안전이다.

동굴 밖의 세상에서는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사용하지만 동굴 안의 세계에서 지도는 곧 '측량도'이다. 미리 만들어 놓은 동굴 내부의 측량도를 통해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긴다. 다리도, 허리도, 머리도, 신체 부위 중 어느 곳도 골고루 편히 걸을 수 있는 길은 없다.

### "종유석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돼"

토끼뽀를 뛰는 듯한 자세로 한 발씩 디며가며 머리 바로 위의 종유석, 바닥에서 자라난 석순 어느 것 하나 훼손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본인들의 안전한 탐험보다 동굴 내의 자연환경이 우선일지도 모르는 탐험대원들. 가는 내내 "길이 어디 있어요?"라는 질문을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것이다. 편평한 대지 같은 길도 없었지만 그나마 길답다고 생각했던 길도 없었던 길들. 어릴 적 호기심에 들어갔던 원형 파이프 통 속을 지나듯 답답하고 불편했던 길, 시리도록 차가웠던 길, 심지어 그런 길들조차도 잃어버리기 일쑤였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쯤 탐험 대원들은 감히 길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험난한 곳들을 가리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동굴탐험연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의 개념은 전혀 다르리라 짐작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쪽 앞서 나가지 않고 가끔은 뒤를 가리키며 바위에 몸을 지탱해 타고 올라가라는 길들은 정말 상상 밖이었다. 두 팔을 장비 삼아 디딜 수 있는 바위의 틈새에 발을 디디고 오직 팔의 힘으로만 다음 길이 생기는 곳까지 올라가야 한다.

### 21C형 콜럼버스들의 모임

어쩌면 동굴탐험연구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힘들다'라는 주제에 관해서만 나열해도 끝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꼭 열 한 번씩 부러는 모든 것에 예스를 해버리게 할 만큼 묘한 반전이 생기게 하는 매력기가 있다.

자신감 향상을 위한 웅변 학원도 체력을 기르기 위한 헬스도 학교 내 가장 좋은 일석삼초의 동아리를 너무 모르고들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감 향상 하나, 인내심 및 체력 기르기 둘, 무엇보다도 중요한 값비싼 전시관의 무료 관람표 셋. 이런 공짜는 좋아해도 대머리라는 결코 곤란한 상황은 오질 않는다. 먼 옛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콜럼버스처럼 새로운 대륙의 발견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튼튼한 손과 발만 가진 이라면 누구나 제 2의 콜럼버스를 꿈꿀 수 있다. 다만 두려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 줄 용기 나침반은 필수다.

김철란 기자  
lan@dongguk.edu